



마지막 회, 미륵부처님의 타심통과 치유능력

미륵부처님께서는 매달리는 심령에게 은혜도 부어주시고 영으로 안찰도 해주신다.
아파도 고통을 견디면 ‘나’를 짓이기는 것이므로 그 때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

뼈의 통증으로 무릎을 꿇을 수 없고 손뼉을 칠 수 없는 상태로 제단에 입교했다

나는 45세 즈음부터 무릎을 비롯하여 뼈마디마다 다 통증이 있었다. 병원에 가서 X-레이를 찍어보니 70~80대 노인의 뼈로 노화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였다. 얼굴이나 피부도 노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나이에 비하여 형편없었다. 그 당시에는 퇴행성이라는 용어도 없었으며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치료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통증이 심하면 통증을 완화하는 약을 처방 받아 먹었는데 그 부작용으로 살이 부어 마음 놓고 약을 먹기도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몇 년 동안 온 몸이 너무나무 아파 견디기가 힘들었다.

몸이 그러한 상황일 때 제단에 오게 되었다. 처음 제단에 왔을 때 한참 동안 손뼉도 치지 못했고 무릎이 아파 무릎도 꿇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엉거주춤하게 양반다리처럼 앉아 미륵부처님 말씀을 듣고 손뼉을 칠 때는 힘을 주지 못하고 건성으로 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무릎 꿇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갔고 손뼉도 차츰 세게 치려고 노력을 하였다. 그러면서 3개월 정도 지나 첫 회에 언급한 꿈을 꾸 후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이 거의 사라지니까, 주변의 노인들도 무릎 꿇고 손뼉을 세게 치는데 젊은 게 이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집에서 아침저녁으로 기도하며 2~3분씩 무릎을 꿇고 앉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3개월 정도 지나 무릎 꿇는 시간을 5분으로, 그 후 점차 시간을 늘려나갔다. 그러다 보니 제단에 온 지 1년이 거의 다 될 무렵에는 30분 정도 무릎을 꿇게 되었다.

1992년 11월 처음 부산제단에 왔을 때 다른 분의 말을 들어보니 1992년 6월까지 미륵부처님께서 부산에 오시고 그 이후에는 안 오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1993년 9월에 부산제단에 오셨다. 그 때 성도들이 미륵부처님께 안찰을 받는다고 졸을 서기에 나도 졸을 썼다. 내 차례가 와서 미륵부처님께 “저는 어깨가

아프고 뼈마디가 아픉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내 어깨에 안찰을 해 주셨다. 그 때 가까이서 보니 미륵부처님 얼굴이 검게 보였다.

통증을 잊기 위해 술을 먹었는데 주님께 안찰을 받은 후, 위가 심한 통증을 일으켜 술을 끊게 되었다

나는 미륵부처님께 안찰을 받을 무렵까지 제단에 나오면서도 술을 먹었다. 장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술을 먹게 되기도 했지만 온 몸이 아파 그 통증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술을 먹으면 술기운으로 통증을 견딜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안찰을 받고난 후에는 술을 한 모금만 마셔도 이를 동안 위가 칼로 도려내듯 너무 아팠다. 두 번 그런 경험을 하고 술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손님이 권하여 맥주 두 잔을 먹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게 왔다. 그때서야 “미륵부처님께 안찰을 받고 그렇구나”하고 깨닫게 되었고, 이제 술을 먹으면 죽겠다 싶어 겁이 났다. 그 이후로는 술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다.

주님의 안색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자 아픈통증이 사라지고 손뼉도 세게 칠 수 있게 되다

그 해 12월에 미륵부처님께서 부산제단에 오셨는데 미륵부처님의 얼굴이 까맣지가 않고 뽀얗게 보였다. 그래서 내 옆에 앉아 있는 여청에게 “겨울이 되니까 미륵부처님 얼굴이 뽀해지셨네”하고 말하니까, 그 여청이 “언제는 뽀얗지 않으셨나요? 얼마나 아끼 피부처럼 부드럽고 피부색이 뽀아신데 무슨 말씀하세요?”하고 말하는 거였다. 나는 속으로 “얼굴색이 까맣잡잡했는데…”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미륵부처님 얼굴색이 환하고 뽀얗게 보인 이후로는 희한하게도 내 무릎이나 뼈마디가 추시고 아리고 했던 통증이 사라진 게 아닌가. 그 이후부터 손뼉을 세게 치게 되었다.

그러나 구부정한 손가락은 완전히 펴



미륵부처님이 일본 식구들을 눈안찰해 주시고 있다

지지는 않았다. 미륵부처님께서 손가락 찌는 운동을 하라고 하셔서 통증을 참으며 손가락 찌는 운동을 하니 거짓말 같이 손가락이 정상인과 같이 펴졌다.

1993년 12월에 부산에 오셨을 때 가게를 팔아야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좀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겠어”하고 말씀을 하셨다.

건강이 회복되자 빛을 갖기 위해 일본에서 한국에서 일하게 되면서 일본 오사카제단에서 예배를 보게 되었다

1994년 1월에 미륵부처님께서 영어의 몸이 되시고 나서 나는 약간 손해를 보고 가게를 팔게 되었고, 몸이 아픈 데가 없으니까 빛을 갖기 위해 돈을 벌러 일본에 가겠다고 마음먹고 미륵부처님을 면회하여 말씀드리고 1995년 5월부터 일본 동경에 가서 약 1년간 일을 하여 돈을 벌어 귀국하였다.

귀국 후 어떤 사람의 권유로 파이낸스에 돈을 투자했다가 거의 빈털터리가 되었고, 빛을 내어 다단계에 돈을 투자

했다가 더 큰 빚을 지게 되었다. 다시 빛을 갖기 위해 몇 년 동안 다른 일을 했으나 빛을 갖기가 어려워졌고 빨리 빛을 갖기 위하여 2001년 4월에 다시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 동경이 아닌 오사카로 갔다. 그 때에는 미륵부처님께서 일본 후지다 승사에게 안내를 받으라고 하셔서 오사카에 가서 후지다 승사를 만났다. 그곳에서 일하는 곳까지 차를 세 번 환승해야 하므로 3일간 후지다 승사가 안내를 해주어 제단예배를 드렸다.

일하는 곳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와 같은 방에서 지내는데 동료가 불편하다고 하여 그 곳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취직하여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후지다 승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츠쿠야마 상을 만나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내가 취직하여 일하는 곳과 츠쿠야마 상의 집이 옆 골목에 있었다.

얼마 안 되어 주인이 가게를 팔아 장소를 옮겼는데 거기에서 일하라고 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나와 함께 지내던 처녀가 식사 대접을 하여 함께 대화 중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옆 골목에

있는 제단에 와서 예배를 보니 나 보고 싶으면 가끔 그곳으로 오라고 하니, 그 처녀가 자기도 미륵부처님 제단에 가보면 안 되냐고 하여 21일 공부하기로 하였다. 츠쿠야마 상과 그 처녀와 나와 셋이서 일요일에는 고베 제단에 가서 예배를 보고 평일에는 셋이서 숙소에서 예배를 보자고 상의 후 후지다 승사에게 비디오테이프를 달라고 하니 한국에 연락하여 미륵부처님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미륵부처님께 전화로 말씀 드렸더니 그곳을 오사가 제단으로 정해주셨다. 그리고 츠쿠야마 상을 승사로 임명하셨다.

2002년 9월에 미륵부처님께서 동경제단에 오셨다. 그 무렵 나는 손가락이 붓고 아프고 감각이 둔하여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아 걱정을 하였다. 신간센 열차를 타고 오사카에서 동경에 가려고 하니 츠쿠야마 상이 “고 상은 미륵부처님하고 악수도 하고 좋겠네”하기에, 한국에서 미륵부처님은 여자 성도하고는 악수를 안 하신다고 말하며, 맘속으로는 ‘미륵부처님께서 악수해주시면 아픈 손이 나아질 텐데’ 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졌었다.

동경에 도착하여 바쁘게 호텔로비로 갔는데 미륵부처님께서 나를 보시자마자 “고 권사! 악수”하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였다. 나는 얼떨결에 막 달려가서 악수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간절하게 악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먹었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오사카로 돌아왔는데 불편하던 손이 멀쩡하게 나왔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과 무심했던 마음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감격하여 울었다.

미륵부처님께서 2차 영어의 몸이 되신 이후에 꿈에 미륵부처님께서 나를 보시며 “엄마!”하셔서 나는 “엄마~” 하며 미륵부처님 꿈에 안겼는데, 미륵부처님의 풍채가 얼마나 크시던지 나는 양팔을 벌였는데 미륵부처님 앞가슴 부 분밖에 닿지 않았다. 이렇게 미륵부처님께서는 작은 마음도 다 아시고 안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는 미륵부처님께서 보광하셨다.

한국 부산제단에서 본격적으로 제단 일을 하니 더욱 건강한 몸이 되었다

그 후 2006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병원 등에서 청소 일을 하였고, 2008년 4월 이후부터 제단 일을 본연의 직업처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 제단 일을 본격적으로 한 이후에 더욱 더 몸이 건강해지고 잡념이 없어졌다.

그런데 2011년이 되면서 다른 데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대퇴부가 통증이 있으면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게 되었다. 몇 달을 그렇게 지냈는데 2011년 9월 16일에는 대퇴부가 너무 고통스러워 예배를 보면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단에 못 나오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맘속으로 미륵부처님께 기도하였다.

꿈속에 나타나신 미륵부처님이 영적 안찰을 해주신 후 대퇴부의 통증이 사라지고 아픈 데가 나왔다

그날 밤 꿈에 미륵부처님께서 젊으신 모습에 하얀 와이셔츠차림으로 나타나 시더니 나를 안찰을 해주셨는데, 안찰 후 양 손에 하얗고 뽀얗한 액체가 잔뜩 묻어 있었다. 그 액체를 닦아내시면서 너무 오래되어 힘들다고 하시면서 웃으셨다. 자고 일어나니까 아픈 데가 전혀 아프지 않았다. 그 이후로는 크게 아픈 데가 없다.

미륵부처님께서는 매달리는 심령에게 은혜도 부어주시고 영으로 안찰도 해주시는 것 같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것도 아프다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에 해당되니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고, 아파도 고통을 견디면 ‘나’를 짓이기는 것이므로 그 때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 미륵부처님의 은덕으로 온갖 병이 다 낫고 자식이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니 너무나무 감사하다. 앞으로 제단 일에 더 열심히 하고 미륵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중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고찬옥 권사/ 부산제단 부인회 부회장

친구에게

여보게 친구, 그간 별고 없었는가. 자네와 난 증산 선생을 신앙하는 길을 같이 걸었었지. 그러다가 자네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은 다들 왼쪽 길을 가는데 나만 말없이 좁고 험한 오른쪽 길로 간 거에 대해 매우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이네. 왜 오른쪽 길을 갈까라고 말일세. 도를 닦는다는 게 무언지 자네 아는가? 격암유록에는 도 닦는 자 술, 담배, 음욕을 끊어라, 불교에서는 음(淫), 살(殺), 도(盜)를 없애라, 했네. 음욕을 끊는 게 낫거나 여자의 성품을 없애라는 것이요,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과 마찬가지로 했으며, 좋은 물건을 부러워하고 탐내는 것이 다 도독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했는데, 이와 같은 계율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려는 의식조차 없으니 과연 증산선생이 이렇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참된 종교 단체인지 회의가 들었네. 또한 진리적인 측면에서도 증산선생이 말한 대두목이 증산선생을 신앙하는 교단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네. 그럼 거두절미하고 자세히 설명해 보겠네.

진아(眞我)를 찾는 것이 수도자의 목표

자네는 종교와 신앙의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종교와 신앙은 진리구현에 그 목적이 있고, 진리란 영원불변의 속성이 있으니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즉 불사영

생, 불로불사, 불생불멸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네. 그렇다면 나란 무엇이며, 인간이란 무엇인가? 먼저 이 같은 근본 명제를 밝혀보는 게 순서이지 않겠는가. 나한테 내가 있다. 내가 나를 찾아야 한다(도전11:69:6)고 증산 선생은 말씀했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진아(眞我)를 찾으라는 말이지 않겠나. 자네는 진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환단고기 단군세기 서에 그 답이 있다네. 즉 진아(眞我)는 일신유거지궁(一神有居之宮)이라 했네. 이는 진아는 하나님의 신이 거하는 집이라는 뜻 아닌가. 그렇다면 현재의 나는 거짓 나이니 즉 가아(假我)는 마신유거지궁(魔神有居之宮), 마귀의 신이 거하는 집이라는 뜻이 되는 거네. 그러니 현재의 인간은 마귀의 신이 ‘나라는 주체 의식’(나의 주체 영)이 되어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일세.

따라서 거짓 나(가아)를 죽여 없애고, 참 나(진아)를 찾아야 이것이 도통이요, 천국 극락 성경에 드는 것이며, 이를 무아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지에 올라가야 비로소 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네. 그래서 도를 닦는다는 것은 참 나(진

아)를 찾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6도 3략 운행지도

그리하여 도통을 이루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세상을 지상선경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미륵불)의 뜻 아니겠는가? 이에 하나님은 3단계 전략을 가지고 감추어진 6명의 사람을 통해 지상천국 극락 선경을 회복하고자 하니 이를 하도 낙서를 바탕으로 한 ‘6도 3략 운행지도’라 하네.

자네 ‘6도 3략 운행지도’라고 들어 보았는가? 그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겠네.

1략은 선천으로 1도 복희씨 4X9=36궁 소남, 2도 문왕은 5X9=45궁 소녀가 되며, 2략은 후천으로 3도 수운선생 6X9=54궁 6수로 중남, 4도 증산선생 7X9=63궁 7화로 중녀가 된다네. 증산 선생은 스스로 “나는 남방 三離火로다(도전6:7)”라고 하였고 또한 “일원수 63왕 길흉도수 십이월 이십육일 재생신 강일순(도전3:354)”이라 했으니 2략의 후천 4도의 63궁 7화로 맡은 분이 틀림

없는 것일세. “신승씨부터 백대일순(百代一淳)이니라(도전11:259)”하였으니 염제신농(炎: 불꽃 염)은 불의 신이니 증산선생은 화운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일세.

3략은 중천으로 5도 목은 8X9=72궁 8木 장녀, 6도 금은 9X9=81궁 장남이 되는 것으로 마지막 81궁 금운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네.

1략 선천, 2략 후천은 男上女下 천지비(天地否)로 삼국시대(외악세상), 3략 중천은 女上男下 지천태(地天泰)로 상생시대(유리세계/천당)일세.

혹자는 토운을 운운하나 토는 하나님 본궁으로 수화목금으로 나가서 사람 몸을 입고 천지공사를 하시는 것이며 81궁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때문에 토운이란 있을 수 없네. 달리 사람 몸을 입고 할 필요가 없는 까닭일세. 다만 마지막엔 성령의 빛으로 임하시니 빛 속에 81궁의 모습이 있음이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눈이 부시어 볼 수가 없으며 놀랍고 두려워 얼굴이 뜨거워서 몸 숨길 곳을 찾기 바빔 뿐이네. 증산선생도 “나의 얼굴을 잘 익혀 두라. 후일에 출세할 때에는 눈이 부시어 보기

어려우리라(도전7:89)”라고 하지 않았던가.

두 사람

증산선생이 기유년(1909.을 6.20) 천지공사에 끝났다고 선언하니 제자가 세상에 나서기를 간청하나 ‘사람 볼’이 없으므로 나서지 못하노라(도전 10편 27장)고 하였네. 증산선생 뒤에 두 사람이 더 나온다는 뜻이 아닌가. 이는 곧 증산선생이 스스로를 2략 후천 4도 화운임을 말하는 것이네. 이 ‘사람 볼’을 알아야 하나님(상제)의 지상선경 건설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네. 사람 둘이라 함은 6도 3략 운행지도의 중천을 담당한 5도 8목으로 오는 72궁(목운)과 6도 9금으로 오는 81궁(금운)으로서 특히 81궁은 대두목으로 마지막 주인공이 되네.

그런데 대두목에게는 이운의 도수와

다음호에 계속
박명하 / 본부제단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